

핵신고 '싱가포르 타결' 가능성

김계관 부상, 오늘 힐과 북·미 6자 수석 회담

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'핵프로그램 신고'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7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.

김 부상은 이날 오후 4시(한국시간)께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,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만났으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북한측 인사들과 함께 공항을 떠났다. 김 부상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알리지 않았으나 통상 방문국 주재 자국 대사관에 머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향했을 것으로 보인다.

힐 차관보는 7시(한국 시간)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.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은 이날 저녁에는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현지 소식통이 밝혔다.